

여성심리연구의 필요성

정 대 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여성심리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도 성원들의 모든 상이한 관점의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친철의 원리가 아니라 구성의 원리이다. 그렇다면 인간공동체는 여성적 관점으로부터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이것은 여성심리를 중요한 주제로 인식할 것이다. 과거의 인간역사는 이러한 구성원리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고통과 불의가 결 과되었다. 이 멩계를 질투, 표현, 돌봄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지지하고자 한다.

모든 1) 과학은 결국 인간 이해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자연과학의 경우도, 물리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에 도달하였을 때 이것은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한 함축을 갖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어서 자연과학은 물리 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인간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물리학은 우주의 신비를 캐기 위하여 허블 스페이스(Hubble Space) 프로그램 등의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고 생물학은 유전자의 비밀을 추적하기 위하여 게놈(Genome)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심리의 수수께끼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창립되는 한국여성심리연구회는 인간 심리의 수수께끼들을 풀기 위한 하나의 프로

젝트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 심리라는 구체적인 주제의 선택을 통한 인간 심리 연구 프로젝트라고 믿습니다. 여성 심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적합한 함축적 주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질투, 표현, 돌봄의 세 가지 주제들의 관찰을 통하여 여성심리 연구의 필요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질투는 특정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심성 상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질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연상을 가지십니까? 혹시는 '질투란 여성의 특정

1) 이 글은 한국여성심리연구회의 창립 발표회(1995년 11월 11일)에서 읽은 것이다. 학술지의 게재를 위하여 각주를 첨가하고 자구수정을 하였다.

2) '과학(science)'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scientia'에서 유래하였고 이것은 지식을 뜻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들어와서 지식은 권력의 일종(아는 것이 힘이다)으로나 기술(techne)로 해석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고대 회랍이나 유대교 전통에서 지식의 개념은 구원(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한 심성 상태; 일반적으로, 한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이 다른 여성에 관심을 가질 때 첫 번째 여성이 둘째 여성에 대해 갖는 심성 상태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이해가 한국인이 한국어의 '질투'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 이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응되는 영어 단어 'jealousy'에 비교하면 놀랄 만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영어에는 그러한 性別의 이해의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³⁾ 한국어의 '질투'라는 단어의 특별한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禮記』가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七去之惡(부모에 순종 않는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나쁜 병에 걸렸다, 말썽이 많다, 도둑질을 한다, 질투를 한다, 행실이 음탕하다)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추측합니다.⁴⁾

한국어에서 질투는 여성들의 專用的 심성 상태라고 간주되었습니까? 왜 질투는 부정적 덕목으로 해석되었습니까? 질투의 禮記的 개념 구성에 여성 억압적 요소는 없습니까? 여기에 그러한 부당성이 있다면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침묵을 지킨 것입니까?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습니까? 질투라는 예기적 개념 구성이 현대 한국 여성들이나 한국 남성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개념 환경은 한국 남성과 여성들의 성별적 상호 인식의 구조에 어

3) 영어권의 문화에서 질투는 여성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남성적이다. 영문학에서도 질투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게서 나타나고 성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출애굽기 20:5)의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질투에 대한 성별적 역할도 없고 '부도덕한 것'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떤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⁵⁾

질투와 같은 억압적 개념은 더 없는 것입니까? 여성은 여성의 성기와 동일시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물화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떡다'의 식품이고 여성은 '가지다'의 상품입니다. 여성은 씨를 뿌릴 '밭'이고 휴식처로서의 '항구'입니다.⁶⁾ 20세기말의 인간사회는 지금처럼 문화가 발전한 역사가 없었다고 말하고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평등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동구가 붕괴하면서 이제 투쟁을 필요로 하는 '역사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심리는 아직도 그러한 사물화적 언어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억압적 언어는 아직 당당한 언어로 사회에 발을 부치고 있고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 그러한 경향성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성의 심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最後 植民地 空間'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 식민지 공간으로서의 여성의 심리는 이제 해방되어야 합니다. 억압된 심리가 해방되고 자유의 심리를 고안하여야 합니다.

4) 참조: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사』, 정음사, 1975.

5) 한국사회안에서 '질투의 심리학'은 당당한 연구주제일 수 있다. '질투'라는 심성상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것의 발생을 위한 사회적 여건 또는 개념적 구조는 무엇인가? 한국과 동양권 그리고 서양권에서의 차이는 추적될 수 있는가? 질투의 심성내용은 무엇인가? 질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질투의 중립화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인간관계에서 질투를 약화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질투는 소위 '정열적 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동인이기 때문이다.

6) 어떤 페미니스트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를 예창하고 많은 여성들은 '여성적이다'라는 표현을 긍정적 평가의 의미로만 이해한다. 언어는 설악산처럼 자연스럽고 토끼처럼 순진하다는 가정은 오류이다. 이하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심리 경험의 어떤 분야도 인간 성원들의 다양한 표현을 요구합니다. 특정한 관점의 표현만이 그 경험을 지배할 때 왜곡과 부당성이 결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성 심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성 심리의 이해는 남성의 관점뿐 아니라 여성의 관점으로부터의 표현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심리의 왜곡의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전들은 '性關係'라는 단어에 대해 '남성 성기의 여성 성기에로의 삽입'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이러한 이해는 남성적 관점으로부터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관점으로부터의 표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성관계의 이해뿐 아니라 경험이나 그 심리의 왜곡입니다. 이러한 남성적 관점으로부터의 표현만으로 성관계를 이해할 때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심리 경험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여성 관점으로부터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성기로써 남성 성기의 흡입'이라는 여성 관점으로부터의 표현은 남성적 관점으로부터의 표현과 더불어 성관계를 남녀 대칭적 관계의 구조로 파악하게 합니다. 성관계의 심리의 왜곡성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여성 관점으로부터 표현을 할 수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총체적 인간 경험이 왜곡되고 있는데도 여성들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성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잠잠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었고 성리학의 전통의 '내외법'은 '여성들이 집안 외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한

다(女不言外)'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여성적이다'라는 단어의 논리를 구성하였다고 믿습니다. '여성적이다'라는 개념은 '우아하다', '아름답다', '온순하다', 등의 뜻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적이다'라는 개념은 '남성적이다'라는 개념에 대조될 수 있습니다. '남성적이다'라는 개념은 '건장하다', '씩씩하다', '용감하다' 등을 내용으로 갖습니다. 두 단어에 대한 이러한 서술적 수준에서 두 개념은 대칭적입니다.

그러나 두 단어의 대칭성은 조금만 더 추구할 때 깨어지고 맙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남성적이다'라는 개념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부사적 조건입니다. '고추가 맵다', '남자가 똑똑하면 그만이다'라는 관용구들이 그러한 '남성적이다'라는 표현의 사용 방식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여성적이다'의 경우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적(우아하다, 아름답다, 온순하다)'이 아닌 경우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고 이 해석이 사회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거울과 빗을 항상 휴대하기 마련이고 화장과 의상의 선택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자가 예쁘지 않은 경우 성형수술을 하게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대학만 나온 것처럼 대답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온순하고 조용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는 이제 '여성적이다'라는 단어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⁷⁾

7) 참조: 줄고, 「여성문제의 성격과 여성학」, 『한국여성학』, 1985, 창간호, 면136-165, 143-145.

여성심리학이 여성적 관점으로부터의 표현을 요구하여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론과 담론의 대조의 고찰에 의하여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이야기(narrative, story)’ 또는 ‘담화(discourse)’라는 단어들은 최근에 ‘이론’이나 ‘체계’와 같은 단어들을 대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은 토대주의에 대한 저항입니까? 상대주의의 표현입니까? 과학의 비형식화입니까? 실재성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객관성이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단어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언어의 의미에 대하여 진리론적 접근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이론 의존성은 의미의 규명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는 생활양식에 따라 이해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⁸⁾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 사변적 체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필연성의 역사적 전개에서 파편 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진리는 살아 있는 시공 안에서 구체적 인간들의 숨쉬는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존철학자들이 구체적 진리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것은 사변적 진리론이 아니라 생활에 뿌리내린 의미론 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야기 개념은 허구적인 말놀이 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상대성을 수용하면서도 이 수용은 이론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상대성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살아 있는 언어에 담아 제시된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의 문제가 극복되는 방식의 진리 제시입니다. ‘언어는 생활양식을 통하여 생명을 갖는다’는 의미론이 새겨 놓여진 개념입니다. 이야기는 삶의 역할을 가진 말놀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론의 시대라기 보다는 담론의 시대입니다. 여성의 관점으로부터의 담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인류 절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돌봄의 윤리는 팍스 페미닌의 질서일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돌봄(caring)은 인간사회의 가치 지향 설정을 위한 한 후보입니다. 물론 이 가치가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이기에 ‘여성적’인가 라는 물음이 가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돌봄이 여성 고유의 덕목이거나 ‘고유의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지배에 의한 평화(Pax Feminae)’를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분리주의적 접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관점은 결과적 성질을 구성적 성질로 간주하는 범주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돌봄의 기능이나 그러한 성질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성을 구성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사회의 조직 방식에 의하여 그러한 성질이 결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의 둘째 오류는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을 성구별 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한 구분이 일단 만들어지면 돌봄을 양성성의 특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해 집니다.⁹⁾

8) 졸고, 여가와 한국사회, 「철학과 현실」, 1992년 겨울, 111-117호.

9) 이러한 입장은 ‘돌봄 대 정의’의 선택지적 양분법의 딜레마에 빠진다고 생각한다. 돌봄을 여성 고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경우 돌봄은 보편적 가치

한편 돌봄을 여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돌봄은 인간 연대적 관점에서 발생하고 결과는 공동체 구성적이라는 특징에서 얻어집니다.¹⁰⁾ 이러한 특징은 지금까지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돌봄은 '여성적'이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 구성에 설득력을 허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성적 가치가 지배하는 평화(Pax Feminine)'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돌봄의 윤리를 정복의 윤리에 대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복의 윤리는 팍스 마스쿨린(Pax Masculine)이 아닐까 묻고 싶습니다. 고대 희랍 사회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였고 경쟁적 수월성에 의하여 사람들의 업적을 평가하였습니다.¹¹⁾ 그 사회는 승부가 가려지는 세계였고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였습니다. 올림픽은 그러한 경쟁적 수월성의 한 사례입니다. 자본주의는 그러한 경쟁적 수월성의 논리를 경제 질서에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적 수월성의 가치는 그 동안의 인간 역사를 지배하였고 그리고 많은 업적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인간의 미래 사회를 지배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미래 사회는 돌봄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인간 역사는 팍스 페미닌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애

일 수 없다. 여성의 손에 미치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돌봄은 구체적 대상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돌봄을 인간 공동체의 지향적 가치로 선정하는 경우 "왜 정의가 아닌가?"라는 물음에 당면하게 된다. 정의는 경우에 따라 비인격적으로 인지되기는 하지만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자 올림픽은 경쟁적 수월성의 가치보다 돌봄의 가치가 지배하는 한가지 사례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지배를 전체의 인간 사회에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보편성으로서의 이러한 돌봄은 '투사적 동일화'라는 개념에 의하여 확장되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투사적 동일화로서의 돌봄은 하나의 동물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인식하는 조건은 인격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믿는다. 어린이는 '나'라는 단어 사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이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적어도 한 번 보아야 한다. '나'라는 단어에 대한 타인의 사용의 지식은 본인의 사용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나'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본적이 있어야 나도 그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찰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관찰은 "나는 저 사람을 나와 같은 종류의 인격자로 간주한다"의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쉽게 상정되거나 논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전제는 나의 선행적 결단을 필요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필요조건은 어떻게 만족될 수 있는가? 나는 "한 사람은 적어도 다른 한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해를 그의 이해와 동일시 한다"의 만족이 그 조건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참조: 줄고, 『투사적 동일화와 가족개념의 확장성』, 『철학』, 1993 가을, 268-291.

11) '수월성(excellence)'에 대한 희랍적 모델과 서서적 모델이 대조될 수 있을 것이다. 희랍적 모델은 수월성을 양화하고 있다면 서서적 모델은 이를 질화하고 있다고 보인다. 전자는 올림픽 경주에서 처럼 '다른 경쟁자들을 이긴 하나의 우승자'에서 단일성, 객관성, 확실성, 투명성, 엘리티즘을 얻는다. 그러나 후자는 달란트 비유에서 처럼 개인의 주어진 재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양식에 부여되는 성질이다. 여기에는 인격성, 개별성, 민주성, 개방성, 다원성이 있다.